

TAXI 기쁜 노래



송대극회 제26회
신입생 환영공연



연출: 한주영 기획: 김종백 작가: 장진 장소: 제1공학관 3층 대학극장
일시: 2003년 5월29일(목), 30일(금) 오후 6시30분 / 5월31일(토) 오후 2시, 6시



극회장, 기획
김종백(경제99)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실대학교 극예술연구회의 장을 맡고있는 99학번 경제과 김종백입니다. 요번에 저희가 신입생활영공연을 함은 있어서 언제나 그랬듯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힘겹게 넘어갑니다.

여러 선배님의 항상 팜플렛의 앞부분을 차지했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글을 저도 이제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저희 보다 더 많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특히 재대하고 바로 말은 극회장이라는 자리에서 뭘해야할지 모를 때 저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해주신 졸업생 선배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공연을 올리게 되는 의지는 선배님들께로부터 나온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어려우신 경기 속에서도 언제나 스폰을 해주셔서 도움을 주시는 많은 사장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벌써.. 봄이 지나 여름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연습을 시작한지 두달이 다 돼어가고 많은 신입생들이 막이 걸히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회인이 되기위한 어린 꼬마 후배님들의 수고에게도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터와 팜플렛 제작에 도움을 주신 이클레이의 많은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동근 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근 극회를 위해서... 파이팅.. 사랑합니다.

2003년 5월 15일

연출의 변



연출
한주영(경영99)

처음 공연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던 때가 있었다. 연극이 좋다는 것 하나로 모인 사람들, 또 그것 하나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무대에서 서 있는 것이 즐겁고, 연극을 보는 것이 즐겁다.

난 여전히 꿈을 꿀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다. 스스로 한계라는 말을 떠올리지 말자. 늘 몽환 속을 걷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서있는 길 앞을 막고 있었다. 내가 내 주위에 여기저기 그어놓은 선 때문에 그 속에 갇혀서 숨막혀하고 있었다. 그럴 이유가 뭐지? 선을 하나씩 없애고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일,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일을 하려 한다.

첫 마음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입생들에겐 이번 공연이 즐거웠던 첫 공연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 배우의 자리에서, 스태프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연극을 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장진

1971년 2월생

1994년 서울예술대학 연극과 졸업

SBS TV '좋은 친구들' 구성작가로 일하던 그는 199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천호동 구사거리'라는 희곡이 당선되어 이름을 알렸다. 그 후 활동무대를 대학로로 옮긴 장진은 손대는 연극마다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리며 연극계의 마이더스의 손으로 주목을 받았다.

연극 들뜸, 폭탄 투하중, 서툰 사람들, 허탕, 택시드리벌 등을 연출 하였다.

연극 '허탕'을 보러왔던 김종학 PD의 눈에 띄어 영화판에 발을 들여놓게 된 그는 시나리오작업, 각색, 영화연출에 이르기까지 활동영역을 넓혀가게 된다.

작품연구

'택시드리벌'은 장진이 나이 스물여섯에 초연한 작품이다. '택시드리벌'의 현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직설적이다. 택시기사 장덕배가 겪는 지옥과도 같은 일상은 초라한 우리들의 현실반영이다. '택시드리벌'은 일관된 사건 없이 주인공이 겪는 하루 동안의 여정을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인들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는 작품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다시 우리를 만든다. 인간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진 도시는 우리에게 온갖 편의와 쾌락을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지배당하고 있는 객체는 인간자신이다. 그리고 도시가 갖는 폐쇄성과 억압의 구조는 장덕배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그대로 재생된다.

장덕배는 거대한 도시에서 택시를 몰고, 하루 하루에 지쳐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소시민이다. 그는 가방끈이 짧은 탓에 'Taxi Driver'를 '택시 드리벌'로 읽지만 나름대로 도시의 구성체 내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물이다. 첫사랑의 추억을 간직한 채 택시를 몰고, 도시의 비좁은 틈을 누비며 자신에게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자학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한가지 소망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초라한 현실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도시로 올라왔지만 그의 새로운 삶 속에 매일, 새로이 등장하는 낯선 승객들은 그를 더욱 숨막히게 한다.

서낙과 지마는 장덕배의 또 다른 자아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실주의 연극에서 눈에 거슬리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다분히 몽환적인 상황을 연출하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일관된 사과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쓰여진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전달되는 주인공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억압과 욕망을 좀더 용이하게 읽어낼 수 있다. 이들은 과거의 순수를 잃고 도시인으로 편입하기를 꿈꾸는 장덕배를 질타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로맨스에 대한 환상을 충동질하여 장덕배를 더욱 커다란 좌절로 몰아넣기도 한다.

덕배의 하루동안 택시에 타는 승객들은 모두 덕배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든다. 그 속에서 첫사랑의 여인을 더욱 이상화시키고, 자신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도시 속에서 걸돌게 된다. 우연히 주운 가방의 주인을 이상화시키면서 현실에서의 탈출을 시도하지만 결국 가방의 주인 역시 각박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도시인일 뿐이었다. 결국 덕배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CAST



김영걸 (정통98)
덕배 역

사랑의 실패한 기억 자랑 하고있다. 난 그 추억이 아플겁니다. 자랑하고 싶다. 난 변태인가?



김희진 (경영99)
서낙 역

모든 것이 시작 되었다. 왜 나는 계속 꿈꾸면 안 되는가? 왜 나는 숫자가 아닌 마음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가? 이제 나의 신 앞에서 다시 시작한다. 꿈으로...마음으로..... nappy7204@hanmail.net



강유미 (중소기업00)
첫사랑의 여인,
신혼부부의 아내 역

나를 사랑하기. 나를 사랑하기 너도 사랑하기. 나도 사랑하기 youandme81@hanmail.net



이미나 (국제통상1)
지마 역

하지마 먹지마 가지마 아프지마 그리고..... 나를 잊지마. mna22@hanmail.net



이원진 (전기제어시스템공학부03)
오징어파는 사람, 어깨2, 업식대, 스쳐지나가는 남자 역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달빛이 강가에 떠 오르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조명이 무대를 밝히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노승환 (자연과학대학 물리·화학과03)
강남역남, 손님1, 광화문2, 해방대 역

사랑은 잃어버릴수록 자유롭다. 는데...시간 약속 지키기. 발실 연습. 무대에서 웃지 말자! 이 세가지가 떠오릅니다.



김구식 (전기제어시스템공학부03)
천호동, 신실동, 나미, 붉은 악마 역

안성담장은 이제 그만!! rotoe@hanmail.net



윤대현 (전기제어시스템공학부03)
잠실역, 어깨1, 평양남, 신혼부부남편 역

무대위에 서면 떨린다.. 하지만 무대위에 서면 즐겁고 흥분된다.



박지승 (언론홍보·평생교육 03)
흐느끼는 여인, 공항3, 추태너, 코러스 역

예쁘게 연극하기 보다. 열심히 연극하기.... 말보로 빨간것보다 연극이 더 좋습니다...!! parkjss@hanmail.net



원지은 (유럽어문 03)
여2, 주현미 여인, 실루엣의 여인, 가방주인 역

언제나 처음은 새롭고 멀리는 것 하지만 늘 초실일수 없는게 슬프다. widms-w@hanmail.net



김재우 (유럽어문03)
영혼, 붉은 악마1 역

보이지 않던 그대의 모습이 그대의 사랑으로 그대의 모습을 볼수있게 하네요..



배상진 (행정03)
잠실역4, 광화문손님1, 소시민 역

극희실 라면 맛 참으로 아... 그래서 무효! 그래도 생존하기 위해 오늘도 젓가락을 든다.



신영준 (언론홍보·평생교육03)
어깨3, 취업5수생, 추태남 역

무대에서 조명을 보니 그림자가 여러개다.. 나의 진짜 그림자가 무엇이고 어느것이 진짜인가? 사바사바



김성은 (국문과 03)
아름마, 사스여인, 여자1, 오호! 사랑여인 역

011-510-6590

STAFF



무대감독
김명진(정통96)



무대미술
이세훈(전기97)



무대장치
안병진(전자97)



무대장치
오민석(전자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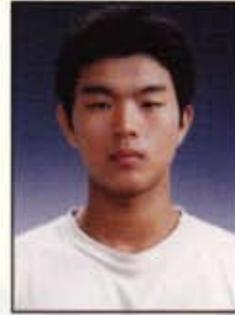
무대장치
차상우(기계97)



조명
최연경(정통98)



음향
김태욱(경영98)



무대미술
윤장한(경제98)



진행
이경우(국문99)



의상
이경미(산공99)



분장
강혜정(독문00)



의상
이상혁(정통01)



정기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13	연흥소인극 "일세영웅나를래종의말모" "대비극 노예의 탈"		
	1923년 7/7.21	전원극 "우리의행진" "기계간" "동백꽃" "십년후" "일출청년회주관"		
	1923년 7/28.29	"소인연극" 고학성후원회 주관		
1	1965년 11/1	"불공으로 돌아오다" 홍영석 작	이반	권진호
2	1968년 10/28	"Our Town" Thornton Wilder 작		이태주
3	1969년 10/10	"의자틀" E. 이오네스코 작		고봉인
4	1969년 10/28.29	"The Miracle Worker" William Gibson 작		고봉인
5	1970년 5/15	"홍콩의 선물" John Millington Synge 작		한영재
6	1970년 10/28.29	"습부의 불꽃" 사무엘 베케트 작		김양기
7	1971년 5/26.27.28.31 6/1.2	"The Rising of the Moon" Lady Gregory 작 "건널목 삼호" 윤조범 작 "달빛행복에 대하여" 안준채 작 "물금단지" 무리우리스 작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 작		정종화 주정서 한영재 유근배 차현재
8	1971년 11/4.5.11	"자력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스 작		차현재
9	1972년 5/25.26.27	"생일파티" H. 핀터 작		한영재
10	1973년 5/21.22.23	"미시시피의 결혼" F. 뒤렌마트 작		고봉인
11	1973년 10/25.26.27	"밤" H. 핀터 작 "기도"(소극장) F. 아라발 작	김득남	차현재
12	1974년 5/25.26.30	"정의의 사람들" A. 가워 작		정종화
13	1975년 6/9.10.12.13	"사울의 신학" 김홍수 안홍순		
14	1975년 10/29.30.31	"비더만과 방랑병" Max Frish 작	김기열	안홍순
15	1976년 6/1.2.3	"언터뷰" 장 윌로드 반 이델리 작	김기남	김득남
16	1976년 10/25.26.27.28	"밤" 장 윌로드 반 이델리 작		김영덕
17	1977년 6/15.16.17.18	"EQUUS" 피터세퍼 작	박정식	김영덕
18	1977년 10/10.11.12.13	"EQUUS" 피터세퍼 작	방영철	김영덕
19	1978년 6/5.6	"Counter Point" Olov Hartman 작	방영철	김영덕
20	1978년 10/24	"EQUUS" 피터세퍼 작 (대학연극재활기)	민승기	김영덕
21	1979년 6/18.19	"한강2979" 김영덕 작	정재호	이병국
22	1979년 9/29.10/2	"초분" 오대석 작	이정일	홍정순
23	1980년 11/5.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 작	양세범	박양근
24	1981년 6/12.13	"노부인의 방문" F. 뒤렌마트 작	이종규	홍정순
25	1981년 11/12.13.14	"달맞이꽃" 김병준 작	전석근	홍정순
26	1982년 5/12.13	"까리콜라" A. 가워 작	윤태웅	지속
27	1982년 10/7.8	"세도우 박스" M. 크리스토퍼 작	전희석	홍정순
28	1983년 6/20.21	"미시시피의 결혼" F. 뒤렌마트 작	전희석	김영덕
29	1983년 10/7.8	"트레버" John Bowen 작	이현우	오정일
30	1984년 5/24.25.26	"도가니(The Crucible)" A. Miller 작	이종규	오세환
31	1984년 10/11.12.13	"번진소" John Stollenberg 작	차세훈	이용섭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32	1985년 5/9.10.11	"번진소" John Stollenberg 작	김상현	이용섭
33	1985년 11/21.22.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디 고레스키 작	하승민	송기범
34	1986년 6/4.5.6	"EQUUS" 피터 세퍼 작	허성우	하승민
35	1986년 9/11.12.13	"코발스" E. 이오네스코 작	양성준	송기범
36	1987년 6/3.4.5	"한 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작	권형진	오정일
37	1987년 9/10.11.12	"오셀로" A. 가워 작	오정일	박경근
38	1988년 6/2.3.4	"새 번은 황계 새 번은 길게" 이이형 작	이종일	오정일
39	1988년 10/6.7.8	"안나? 못나?" Dario Fo 작	권태수	송근호
40	1989년 5/25.26.27	"늑대" 윤조범 작	전승필	안성후
41	1989년 10/10. 17. 18	"대성당의 살인" T.S. Eliot 작	오정일	이반
42	1990년 5/24. 25. 26	"안티고네" 장 이누이 작	권태수	이준석
43	1990년 8/30. 31. 9/1	"한치연대기" 황석영 작	전승필	이영민
44	1991년 9/5. 6. 7	"생일 파티" H. 핀터 작	남재우	권승형
45	1991년 9/5. 6. 7	"날개" 이상 작	양현준	권형진
46	1992년 3/19. 20. 21	"우린 나팔을 불었다" 김상필 작	임경호	홍은영
47	1992년 9/17. 18. 19	"골라의 예수" 김지하 작	홍석훈	송근호
48	1993년 5/20. 21. 22	"세발자전거의 죽음" A. Miller 작	홍영석	박원상
49	1993년 10/21. 22. 23	"박시 박시" 김상수 작	소장호	박원상
50	1994년 5/26. 27. 28	"굿 닥터" 남 사이먼 작	정석훈	소장호
51	1994년 9/29. 30.10/1	"안티고네" 소포클레스 작	소장호	박원상
52	1995년 5/25. 26. 27	"상자속의 여자" 김용미 작	전승필	홍정순
53	1995년 11/26. 27. 28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JM. 바스콘셀로스 작	김은영	남재우
54	1996년 3/7. 8. 9	"자살" 김현욱 작	한석훈	손미라
55	1996년 9/5. 6. 7	"백마이라는 이름의 짐차" 테네시 윌리엄즈 작	조태희	이종희
56	1997년 3/13. 14. 15	"우리 집내" 손훈 외달터 작	신하영	서수경
100주년	1997년 10/8. 9. 16. 17	"대성당의 살인" T.S. Eliot 작	양세범	정종화
57	1998년 3/18. 19. 20	"살인 불어" E. 이오네스코 작	조태희	권내리
58	1998년 11/26. 27. 28	"불고기의 죽음" 유리리 작	윤장환	조태희
59	1999년 3/11. 12. 13	"사람은 저마다 모두 색명입니다" 이정연 작	김대인	이정연
60	1999년 9/2. 3. 4	"세상 낚기" 이정연 작		이정연
61	2000년 5/4. 5. 6	"아름다운 살인" 장진 작	이종재	이경희
62	2000년 8/31. 9/1. 2	"소나기" 황순원 작	김귀하	박정국
63	2001년 3/29. 30. 31	"인간에 대한 예의" 서정훈 작	이목재	서정훈
64	2001년 9/6. 7. 8	"바라보다 돌아가다" 김희진 작	서정우	김희진
65	2002년 3/13. 14. 15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작	김영길	김희진
66	2003년 3/6.7.8	"옥수수에 서면 양구정동이 보인다" 김태수 작	이미나	윤정환

신입생 환영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년 3.10, 11, 12	"악마와 톰" .Aning 작		김홍수
2	1976년 10.29, 30, 31	"보석과 연인" 이강백 작		김득남
3	1977년 3.16, 17, 18	"출발" 윤대성 작	전경호	안홍순
4	1981년 3.30, 31	"셋" 이강백 작	한 철	정재호
5	1982년 3.24, 25	"ARIA DA CAPO" E.St.V.Millay 작	이영환	오세환
6	1983년 4.16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락 작	최시영	이용섭
7	1984년 3.8, 9	"블랙 코미디" 피터 세퍼 작	전희석	홍여석
8	1985년 7.20	"개인의 소공간" N.Horald 작	차세훈	김인보
9	1986년 3.17, 18, 19	"ARIA DA CAPO" E.St.V.Millay 작	이영민	허승민
10	1987년 3.12, 13, 14	"인형의 집" 헨리 입센 작	이길영	김정은
11	1987년 3.12, 13, 14	"더러운 손" J.P 사르트르 작	백윤현	박경근
12	1988년 3.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 작	천승범	황금실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3	1989년 3.23, 24, 25	"흑인수녀를 위한 진혼곡" A.Camus 작	홍덕태	박경근
14	1990년 3.8, 9, 10	"우울증 환자" Botoh Strau B 작	이영민	박혜숙
15	1991년 3.7, 8, 9	"노크 노크" 줄스 파이프 작	정현용	이범준
16	1992년 5.28, 29, 30	"꿈 먹고 물 마시고" 이근삼 작	김상겸	양현준
17	1993년 3.11, 12, 13	"메두사" George Kaiser 작	소장호	박원상
18	1994년 3.10, 11, 12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 작	이명성	홍석환
19	1995년 3.9, 10, 11	"봄날" 이강백 작	양명호	정석용
20	1996년 5.30, 31, 6.1	"올여러 뱃고동아" 성준기 작	정재훈	김형근
21	1997년 5.29, 30, 31	"로물루스대제" F.뒤렌마트 작	박정국	정석용
22	1998년 6.5, 6, 7	"결혼/아폴로" 이강백 작	강길호	류민주
23	1999년 6.3, 4, 5	"자매, 리투아니아" 홍신태	권내리	
24	2000년 11.16, 17, 18	"도덕적 도둑" Dario Fo 작	김명진	강길호
25	2002년 5.30, 31, 6.1	"노부인의 방문" F.뒤렌마트 작	강해정	서정우

공연에 도움을 주신 분들

제주본가	VINO	이오땡
백마주점식당	스카이월드 PC방	해리피아
JUST Friend	도봉산갈비	JUNE
COWBOY	당구일번지	모노폴리
야 크	자 매	

공연에 도움을 주신 분들

명동분식	즐거찾기 만화방 편안하게 만화를 즐거수있는 공간	드림당구장 823-9728
손칼국수 816-3473	우리분식 814-2331	한성 822-5576
옛친구 814-4280	대림식당	송실상회
큐피트	전공필수	발해
메카	혜성만두 분식	블루힐
멋쟁이야	본하이머 EBS노래방	이레김밥
고추전쟁	청운식당	고기마을 찌개나라
현대슈퍼	green camp	대학클럽
ROSE BOWL	동아마트 823-6657 이 동네에서 제일 싼.	송실먹거리
대나무골	삼영당구장	포엑스

송대극회 제26회 신입생 환영공연을 축하합니다.

eClay
www.eclay.co.kr

● Design Management ● 전시기획 및 대행 ● Homepage 제작, 관리
110-775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1209호 TEL: (02) 6271-2240 ~ 3